

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

한림읍 귀덕리 이태희, 강주화 해녀 인터뷰 - 1

해녀: 이태희(1952년생), 강주화(1960년생)

인터뷰 일자 : 2019. 06. 24.

인터뷰 : 좌혜경(Q로 기록),

해녀 : 이태희(A로 기록), 강주화(B로 기록)

Q : 옆이 언니네 바당이 어딜로부터 어떻 경계가 되었수과?

A : 귀덕1리 요기에서부터 지금 저 나신동 우리 마을 그 용운동하고 경계선. 우리 나신동하고 용운동

Q : 주로

A : 수원이지, 그러면. 수원까지

Q : 수원까지?

A : 응. 수원이 용운동에 있거든

Q : 여기서 주로 잡는거는 겨울에 물질 하니까

B : 소라하고 해삼

Q : 소라하고 해삼? 소라는 어느 정도 잡아마썸? 여기서 ??? 물량 이수과?

A : 많이 잡아.

Q : 많이 잡아?

A : 아이는 상군. 헤헤헤

Q : 언니 잡는거 애기 좀 해줍서.

B : 우리 얼마나 잡을 건고? 한 한번 들어가면 한 삼십키로(30kg) 정도 잡나?

A : 더 잡을 때도 있고

B : 한 삼십키로(30kg) 정도 잡겠지. 현디 가격 안주고, 가격도 안주고

Q : 소라는 어떤 데 주로 많이 잇우과?

B : 소라는 먹이가 있는데가 있는데, 먹이가 없어. 오염이 되가지고

Q : 오염이 되가지고

B : 응

Q : 그러면은, 삼사십키로(3,40kg)는 많이 잡는 건데

B : 잘하는 사름덜

A : 잘해

B : 못허는 사름덜은 못잡고

A : 상군 상군

Q : 소라, 여기 많이 나는 여는 어떤 데우까?

B : 저 밖에 저 코지 저 등대 보이는데 저쪽에, 막 밖에 나가서 들어요

Q : 거긴 무슨 코지렌 험니까?

B : 진즐코지

Q : 아, 진즐코지? 거기가 소라가 많이 나?

A : 나는데 좋아¹⁾

Q : 좋아?

A : 여기가 제일 흙어²⁾. 이 동바당이 제일 좋은 거

Q : 동바당?

A : 이거 동바당. 축항 저우론 서바당. 축항 이쪽으론 동바당

Q : 동바당이 흙은 거?

A : 응

Q : 그 소라가 아까 있는 여예덜 들엄수과?

B : 예. 여예덜. 밖에 나가면 나갈수록 여가 있어 예. 저 코지같은 데는. 그레 물살이 막 가
예. 물이 많이 물살이 썰어. 그니까 우리 그 뭐냐, 노끈으로 해가지고 혼 열다섯 발, 우리
발로 열다섯 발 따서 딱허게 심어가지고, 그 여 이런데 같이 걸리면은 테왁이 안 끄셔가
지 예. 거문 거기서 그거를 중심으로 잡아

Q : 거문 거기 깊이가 몇 발정도 됴수과?

B : 깊이가 깊은 데는 깊어요. 혼 십메다(10m)? 얇은데는 오메다(5m) 삼메다(10m) 허고 그런
데. 깊은데 간다고 있는 거 아니. 재수가 좋아야, 허허허. 재수가 좋아야 있어.

A : 먹는데 먹어게, 소라도.

B : 힘들어

Q : 먹는데 먹는다라는게 무슨 말이우과?

A : 소라가

B : 소라덜이 좋아하는 이런 돌 같은 거 그런 디가 있어요. 아무데나 있는게 아니고. 그니까
우에서, 물에 거니까 우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저기 있으니까 찾아야 되고, 거문 숨이, 숨이 짧은 사름은 그디 가서 찾지도 못하고 그냥
나오는 사름이 얼마나 많은데. 못하는 사름은 맨날 들어가 봐도 못하잖아요. 그걸 찾질
못해가지고

Q : 그니까 지금 한 십미터(10m) 쯤에 소라가 있는 거과?

B : 아니, 이런 가에도 있어요. 이제 산란기 때 되면은 여름에는 주로 이런 막 가에 오니까
바다를 지키잖아요. 잡아가지 못하라고. 못하게

Q : 산란은 어떤 식으로 험니까?

B : 산란은 예. 자기대로 이렇게 물이 따뜻하면은 우에는 올라와.

A : 우미 발에 우미 발에

B : 우뭇가사리 발에

A : 우미 행 보면, 이런 데 널영 보면, 소라가 같이 따라 올라와. 경헌디 산란기라 지금

Q : 그니까 알로 낳는게 아니라 소라 그냥

B : 알로 나니까 소라가 되겠쵸

A : 알로 낳드라 이? 그 알까는 기간에

B : 그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

A : 피어, 피어

B : 그 뿌영허게 그런 정액 같은게 예, 그런 것이

A : 팍팍 피어서

B : 이렇게 잡으면은 그것이 이 물에 하얗게덜. 성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것이 알인가 봐
요. 그래서 째째하게 크고, 크고. 성게도 이제 있기만 허면은 산란기라서 안하고

1) 줄다 : 크기가 작다

2) 굵다.

Q : 성계는 먹이가 었어도 잘 자라
 B : 아이고, 먹이 잇어야 살찌주.
 A : 안 살찌
 B : 먹이 없으면은 먹을 것이 없으면은 가네들이 살찌질 았아
 Q : 성계는 았은 곳에 잇우과?
 B : 예
 Q : 주로?
 B : 주로 이런 았은 데 잇는데, 작년 같은 데는 양식을 해서 밖에 것을 이렇게 건져다가 뿌렸는데, 올해는 안 해서 이제, 내년은 그렇게 흔 몇일이라도 해볼랴고
 A : 올해 인제 잡았다가 가에다가 다 뿌릴 거. 어쩔 수 없어. 돈벌이가 그게 제일 나사³⁾
 Q : 여기는, 그러면 해녀분들이 몇분이나 지금 일하고 잇우과?
 B : 한 삼십팔명(38명)
 A : 삼십팔명, 양성 들어 오난 사십 한 오명
 B : 피계, 삼십삼명에서계
 A : 팔명 들어완
 B : 그래, 거문 한 사십명(40명), 사십일명(41명)
 A : 사십 한 이명 쯤
 B : 우리 해녀학교가 그거 양성했았아요
 Q : 양성허니까 여기서
 A : 젊은애들
 B : 여덟 사람
 A : 다 들어완. 여덟사람 들어완
 Q : 여기 어촌계에 다 들어온 거?
 A : 으응
 B : 해녀부에 들어오고, 다 돈 내야 돼
 Q : 돈 내야 된다라는 것은 또 무슨 거과?
 B : 해녀부에 가입하려면은 돈이
 A : 가입비, 가입비
 B : 해녀부에 가입을 하려면
 A : 공금이 잇어
 Q : 얼마정도
 A : 해녀부에 공금이 잇어. 한 백만원(100만원)
 B : 들어오려면
 A : 우리는 많이 안 받아. 한 백만원(100만원) 받으면 그냥 양식장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
 Q : 해녀 되기가 여기는, 여기 거주해야 되았아
 A : 거주하는 사람만
 B : 여덟사람 다 우리동네
 Q : 아, 여기서 거주하고 계신 분
 B : 네
 Q : 나이덜은 다 젊은애들이지 예

3)

B : 아니, 육십(60), 오십(50) 육십(60)

Q : 거기 그러면 사시는 분들

B : 예, 예. 다 시집완, 외국사람도 있고

A : 켈 어린애가 사십대(40대) 아니?

B : 응

Q : 그게 어떻 그

B : 외국사람이, 외국사람이 여기 시집와서 사는데, 애기 낳고 한 이십년 살았는데, 양성을 해 가지고 물질 완전 잘하여. 문어도 잘 잡고

A : 필리핀 필리핀

B : 외국에서 와서

A : 너무 잘하더라

Q : 너무 잘해? 우리 제주 해녀덜보다 더 잘해?

A : 어우, 한번은 문어를 아홉개나 잡아 온 거 아니?

B : 흐흐흐, 우리도 못 잡아, 가인 잘 잡아

A : 잘도 잘해

Q : 언니네는 문어를 어떤 식으로 잡았수과?

B : 우리는 보이기만 하면은 뭐

A : 이렇게 보면 이런 구멍에

B : 바위

A : 눈 동그랗게 떠 있나, 거문 그걸 가운데 호멍이를 콧 찍어 탁 나와

Q : 문어가?

A : 그디 안 찍으면은 잡기 힘들어

Q : 문어 잡으면 다 머리 벗기고

B : 아니 아니, 그냥

A : 그 숨구멍 콧콧콧 찢르면

B : 호멍이로

A : 응

Q : 그러면 자기가

B : 죽어. 죽어 죽어

A : 이게 숨통인가 봐

B : 눈 하고 눈 사이

A : 경 안허른 도망 가부는다, 어떻 헐거라게

Q : 언니네 그러면 문어 구멍은 다 알고 있지 예

B : 몰라, 그냥 넘어

A : 몰라, 넘어 가다 보멍 잇이문

B : 우연히 있지, 어디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물질 뭐 선수가 따로 있죠. 없지.

A : 그 모래가 이, 막 바닥 나온 디가 잇어. 영 가다 보민. 그런 데 이제 들어갈 수도 잇어. 모래 막 파 내똥

Q : 모래 파 내똥

A : 응 그속에 들어 강

B : 집을 만들어
A : 만들어. 허허
Q : 언니네 딱 보면 ‘아, 문어 이 썸에 있겠다’
B : 아니, 몰라
A : 잘 몰라. 어쩌다 흔 번은 맞을 수도 있어.
B : 들어가 봐야 알지
Q : 맞을 수도 있고
B : 무조건 들어가야, 물속이니까
Q : 여기 바당에도 다 이름덜 있지 양?
B : 예
Q : 언니네가 알고 있는 이름은 몇 개나 됴수과?, 여들
B : 여?
A : 여
Q : 여 이름들
A : 여
B : 큰여, 셋여
A : 셋여, 캔여
B : 캔여, 검은여,
A : 검은여, 검은여
B : 또
A : 거 뻥이 엇어.
B : 창통여
A : 창통여허고 저 여 무슨 여? 코지레 가는, 저디 우리 항상 곱허는 여
B : 새비여
A : 캐비여 이?
Q : 새비여는 무슨?
B : 모르쿠다. 우리 옛날 할머니덜이
A : 항상 곱을 하영 들어
B : 저 어로 여로 경계라 어로 여로 경계다 이렇게 하거든
A : 솟여도 있고, 솟여
Q : 많이 나곡 그런
B : 많이 나는게 아니고, 거기는 툷 같은 것도 나고 이, 우에 이렇게 하니까 툷 같은 것도 나
는 데, 우리가 이제 작업을 들어가면은 경계가 있잖아요. ‘이까지는 가지말고 일로부터⁴⁾
여기까지는 가라’ 그런 여
Q : 경계여구나
B : 예, 경계여
Q : 그러면 언니네 한 이십미터(20m)까지는
B : 못 들어가요
Q : 못 들어감지예, 한 십미터(10m)까지는
B : 십미터는 들어갈 수 있을 걸

4) 여기서부터

Q : 전복인 경우는 깊은 물 속에 잇우과?
 B : 전복은 약 허젠 해도 잇우다, 이제
 Q : 요즘은 없지만 그 전에는
 B : 전에는 가에도 많이 있었어요
 A : 이 가에도 훈 돌에 다섯개씩 붙어라
 B : 허허허
 A : 나, 나 들어간 때
 B : 훈 삼십년
 A : 물질 시작허난 전복은 많이 해나서
 B : 삼십년 전에, 훈 삼십 한
 A : 그 전이라
 B : 이,삼년(2,3년) 그 때는 이런 가에도 전복이 많이 들었다 하면 이삼키로씩 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자연산
 Q : 거문 여기 해조류가 뭐, 우미
 B : 우뭇가사리
 Q : 우뭇가사리덜이 많수과?
 B : 우리 이번에도 한 삼일 작업 헐 내일 팔거우다.
 Q : 요즘 키로에 그 저기 한 망사리리에 삼십키로에 얼마정도 헐수과?
 B : 한 이십팔만원, 이십구만원
 Q : 거즘 삼십만원
 B : 거의 삼십만원 돈
 Q : 그거 허면은 훈 몇 마다리 헐디가?
 A : 훈 십마다리, 네마다리 헐실거여
 B : 응, 네마다리
 A : 야인, 하영 헐실거라
 B : 네마다리
 Q : 그거는 남자덜도 도와줍지 양?
 B : 예게. 막 저 내고
 Q : 우뭇가사리
 A : 우린 못 해여, 저내지 못 해여
 Q : 응. 저내지 못허여
 B : 우린 즈물아 오면은 막 가에서 와서 잡아 땡겨주고, 헐조덜
 A : 남편덜 있는 사름은 남편덜 왕 다 도와주고
 B : 헐조덜 해줘
 Q : 남편 없는 사름은 어떻해?
 B : 거문 우리들이
 A : 빌어, 빌어
 B : 헐조허여
 A : 서로서로 헐조하고, 또 노는 사람 와서 좀 해달렌 허고
 Q : 해달렌 허고예?
 A : 우미가 제일 힘들어

B : 상부상조
Q : 그 우미는 자기가 채취한 거 다
B : 응, 개인
Q : 자기소득 이?
B : 네
Q : 우미 말고 또 뭐 톳 같은 것도 잇우과?
A : 톳은 올해 안좋은
B : 톳 같은건 가격이 없어서
A : 공동작업 못했. 그냥 동네사람들 해당 먹어서 했.
Q : 아, 기구나예.
A : 우미가 엇어. 저 톳이 엇언. 경 안허민 공동작업 해실건디
Q : 여기도 몸도 없고예?
A : 몸이 엇어. 몸이 엇어.
Q : 몸이 엇고
A :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Q : 글썄, 해녀들이 들어와도 무신거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A : 계난
B : 예
A : 걱정이라
Q : 종패 같은 건 안 햄수과?
B : 해삼 같은 거, 종패
A : 해삼
Q : 해삼이 많이 남구나
A : 작년엔 전복 많이 들이쳐 놔뒀서. 지금 안 들어 가봐 거기
Q : 한 삼년(3년)
A : 삼년(3년) 놔두젠 아직 안들어 간
B : 전복 들이쳐도
Q : 양식장에
B : 살아 있는 뭐가 없어요.
A : 잘 안 살아게
B : 잡아오는 수준이 얼마 좋지 안 해
Q : 그 양식장에 들이친 거 아니예?
B : 예
Q : 거문 해삼은 어떤 식으로 자랍니까?
B : 해삼은
A : 해삼은 이 빨에, 빨에, 빨 이신디 들어가.
B : 모래, 모래
A : 모래이, 막 더러운디 잘 잇어.
B : 잡을 때 보면은 해삼 똥이 있어요. 푼똥똥 해가지고 그거 따라가면은 있을 수도 있고,
재수 좋은 때는 직통 해삼 앞으로 갈 수도 있고, 호호호호
A : 호폼⁵이, 말하자면이 호폼 더러운 디서 자라.

Q : 해삼은
A : 응, 좀 뽀이 막 있는 데. 경허영 나오는 거 닮아. 깨끗한 거 닮는데 그 해삼 잇인딘 막 뭉헌 디서 나오더라고
Q : 다 흥해삼 아니?
B : 흥해삼. 양식도 다 흥새삼 옹디다.
Q : 예
A : 해삼은 그래도이 들이치면 좀 잡아.
Q : 잘 자라는
A : 그런데 올해는 없더라.
Q : 거 들이청 몇 년 이섬수과, 몰라?
B : 바로 그냥
Q : 들이청
A : 내년 되면
B : 잡을 거
A : 크지 안허카?
Q : 만이 커?
A : 백그램(100g)만 되면
B : 백그램(100g)만 되면
Q : 옛날 미역허던 얘기 곱아줍서
B : 우리 미역허여난 건 몰르쿠다. 우린 안해부난
A : 우리 동넨 올리도 미역이 엇언 못해신디, 이 옆동넨 한사람이 몇 십만원씩 벌어실거라. 귀덕은
Q : 아, 미역, 놀미역을 해가지고?
B : 응, 식당으로
A : 식당에 계약 헐에 경허연 팔앗덴 허는디, 우리는 올리 미역도 없더라고. 점점 물건이, 오분자기는 올리 조금 봐지는 편이라이 거의.
Q : 오, 오분자기 종패 해수과?
A : 종패 낱가지고 작년에 조금 많이 잡아.
Q : 아아, 오분자기가 없는데이
A : 오분자기를 줘야 돼요. 오분자기를,
Q : 종패를?
A : 음
B : 옛날엔 오분자기들 많을 땐 많이 잇었는데 이젠 없어. 다 오염덴
A :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오분자기 팔만원(8만원) 해신디, 올리는 육만원(6만원). 거 괜찮지 안 허여? 되불기만 허른
Q : 잇기만 허른. 오분자기는 어떻 잡아마썸?
A : 우리 그냥 해경은 안 허고, 이제
B : 성계 잡을 때
A : 성계 잡을 때 돌 일르면 있드라. 성계 없는 돌에는 오분자기가
Q : 오분자기가 잇어?

5) 호꼼

B : 돌 일르면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지 안해. 돌에 붙었다가
A : 나와
Q : 아, 경험니까?
A : 빨리 안 허문 못 찾아.
Q : 아아
A : 빨리 도망가더라고
B : 옛날에는 여 같은데 이런 구멍에 이런디에
A : 다 잊어신디
B : 떼기 곳은 디 막 붙엉 잇엉예. 허는디 이젠 그런 것이 없어. 그런 여에 먹이도 없고, 거난 성게 작은 것들이 다 그 구멍에 들어가불어서 없어, 오분자기가.
Q : 전복은 비창을 어느 쪽으로 해여그네 잡아야
B : 오른쪽계, 오른쪽
A : 오른쪽
Q : 아니, 오른쪽 잡는데, 전복 어느 면을 가서 찢러야 될 거파?
B : 가운데
A : 가운데
Q : 가운데?
A : 음.
B : 가운데를 해야
Q : 납작한 가운데로 찢러야
B : 예예 예. 납작한 가운데로
B : 납작한 달로, 어쩔 수 없이 뒤로 찢르게 되면 찢르는데, 납작한 데가 제일 좋아.
Q : 아, 두꺼운디 찢러버리면은
B : 깨져
Q : 깨져버리고?
A : 그, 뭐 게옥 엇어불면 죽어불주게 거난.
Q : 물 속, 내가 어디 쯤 와 있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합니까. ‘내가 물 속에 여기 어디 와 있지?’ 이거는?
B : 아, 그거는 이런, 우리는 이런
A : 여덜 방 알아점실거라.
B : 밖에 이렇게 나가, 저 코지 같은 델 가면은 딱 가에 저 등대를 보던가, 아물든 가에 저기 뭐냐, 해녀상을 보던가, 그렇게 해서 ‘아, 여기로구나’ 그 정도. 이쯤 가면 여가 있겠지 그런 짐작으로 알아.
Q : 그 물질 교육을 아이들한테 가르키잖아예.
B : 예
Q : 어떤 식으로 가르کم수과?
B : 어떤 아이덜은 처음부터 못 허는 아이덜이 있어예. 물에 들어 갈 수가 없는 아이덜. 그러면은 선생님덜이 다 가서
A : 밀어 줘야 돼
B : 이제 머리 힘도, 힘을 주고, 배에 힘도 주고, 이제 팔도 힘 주고, 이제 우리가 가서 엉덩이를 이렇게 밀어줘야 돼

Q : 으음
 B : 떠부니까, 납을 안 차니까
 Q : 음
 B : 떠볼잖아요. 그냥 밀어주면은. 이제는 이거 오월(5월) 멧 일부터 허니까 잘해요. 애들이.
 Q : 한 멧 개월
 B : 오월(5월) 한달, 유월(6월) 한달, 두달간
 A : 두 달 했지.
 Q : 두 달이면은 토요일만 헨 거?
 B : 예. 토요일
 A : 양성은 토요일, 일요일
 Q : 십오(15), 십육일(16일) 교육 받안
 B : 예
 A : 잘 허여
 B : 잘 허여. 어떤 아이들은예 진짜 숨도 잘도 길어.
 Q : 게민 멧 미터까지 갈 수 잇우과?
 B : 아니게, 거난
 A : 그 정돈 아니고
 B : 그 정돈 아니고, 그냥 무조건 자기대로 솔, 자기 혼자 들어가서 뭐 따올 수도 있고
 Q : 어어
 A : 이제는 뽕돌⁶⁾도 쥐실거라
 B : 응, 뽕돌 차고
 A : 처음엔 뽕돌 안주주게
 Q : 아아, 연철 쥐가지고
 A : 응, 경허난
 B : 잘해.
 A : 뽕돌을 주니까 이제는
 B : 우뭇가사리도 막 허고, 애들이 재미, 재미삼아서
 Q : 재미삼아예. 거문 언니네 선생님이로 들어갈 땐 같이 들어가?
 A : 음
 B : 아니. 시켜주잖아요.
 A : 시켜주고
 B : 가이네가 들어가면은 눌러주잖아요.
 A : 들어가면, 줄러주면, 같이 들어강 요렇게 요렇게 뜨더라고도 가르켜주고 다. 우리, 우리 하듯이 가르켜 주는 거.
 B : 발도 이렇게 하라고 하고. 어떤 애들은 이 발을 막 빨리 놀리, 빨리 움직여. 그런다고 빨리 나가지가 않거든. 그 걸 맞춰, 균형 잡혀서 해야지. 어떤 애들은 막 그걸 빨리 빨리 허여.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Q : 음, 거문 언니데는 물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햄서?
 B : 우리는? 그냥, 그냥 들어가면은 팔만 노리곡, 다리
 A : 오리발 힘이 많이

6) 뽕돌 : 여기서는 연철을 뜻함

B : 오리발로 이렇게 허민
A : 많이 들어가
B : 자동으로 가잖아
Q : 경행 죽죽 돌아봐야 될 거 아니꽈?
A : 으
B : 예, 숨이 긴 사람은 많이 돌아볼 수 있고, 숨 짧은 사람은 그냥 그디 가서 그냥 올라오고
A : 그디가서
B : 으허허허.
A : 그디 강 엇이민 그냥 올라와
B : 그냥 올라오고
Q : 그게 차이가 크구나이
A : 으, 그게. 빠른 차이. 야이는 빨라
B : 음, 우리는 빨라
A : 우리는 같이 들어가도 떠
B : 우리는 숨이, 숨이 짧아도 이 물 속에 가서 빠르니까
A : 빨라. 숨은 우리 골은디 골은디
B : 아녀, 나 숨 잘도 짧아
A : 숨이 거의 골은디, 야이는 빠르니까 빨리 허여
Q : 음, 언니는 느리고
A : 으응 느리고. 우리는 몸피도 있고이. 좀 느려
Q : 그래도 해녀들 몸피 있어야 더 작업도 잘허지 안허여
A : 아, 잘허여. 아이, 몸피가 엇어야 되어.
B : 허허허허
Q : 몸피 엇어야 되어?
A : 예, 몸이 가볍잖아
B : 몸 무거왕 못 험니까게, 다 허주
Q : 언니는 그러면은 여기서는 최고 상군정도 되겠다이
A : 응, 상군이야
Q : 돈은 얼마정도 벌어?
B : 얼마, 작업날수가 메칠 없어요. 겨울엔
A : 우린 해녀학교 해부난 더 엇어
B : 겨울에는 이제 파도가 세서 못하고, 또 이제 추워서 이제 어르신덜 있기 때문에 추워서 못하고, 얼마 날짜가 없어
A : 천만원(1,000만원)이나 벌어점신가
B : 천만원. 성계 행 혼 삼백 벌고, 한 오백 벌
A : 천만원
B : 천만원은 벌겠지 뭐
A : 그 정도 백이 못 벌어.
B : 못 벌어
A : 옛날에는 더 벌었저이
B : 못 벌어

Q : 패류 해가지고 한 오백, 소라 해가지고예

B : 소라 행 오백 못 벌어. 한 삼백 벌가

A : 한 삼백 더 벌어지지 안햐시냐 니네

B : 몰르크라

A : 아니, 작년까지는 경 벌어서. 경헌디 올리가 너무 엇언, 소라가 이

B : 무조건 아뭇튼 이것 저것 행 천만원이, 천만원 버는 해녀가 별로 없을 거예요.

Q : 예

B : 예. 천만원 벌엄시든 삼백만원, 삼백만원 버는 사람도 있고, 오백만원 버는 사람도 있고

Q : 해녀 나이드신 분들은

B : 예

Q : 돈이 얼마 안 되엄주

B : 예게

A : 얼마 안되어도 일대장이주. 무저건 일대장이니까 일등으로 헌다 허고, 그거 벌어.

Q : 음, 언니는 한 오백백이 못 벌엄구나.

A : 오백, 오백은 성게허난 벌어점신가, 아하하하

B : 으흐흐

A : 거문, 아이고 전복 헐 때는 하영 벌어져라마는 전복이 하나도 엇어